

해외 어학 연수 최종 보고서

연수기관 (국가명)	Asia Pacific University (말레이시아)	연수 기간	2024.01.06. ~ 2024.02.03
학과	간호학과	학번	2248027
이름	홍보람	이메일 주소	ckl3032@naver.com

학업 관련 (연수 기관 설명, 수업방식 및 구성, 해당 기관 서비스, 해당 기관 특징 및 장·단점 등)

연수기관은 장점이 확실하게 공부를 할수있다는 점이다. 다른 연수기관과 다르게 오전오후 시간이 뿔뿔하게 짜여져 있고 교수님들이 한명한명 피드백에 최선을 다하신다. 그리고 우리반 level4의 경우 본과에 진학할 외국인 친구들과 한반이었기 때문에 더 친해질수있고 그들의 꿈을 나눌수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호텔과의 거리가 멀어 통학시간이 길었는데 학교와 가까운곳은 편의시설이 없어서 불편했을것 같다. 그리고 가서 알게 되었는데 교수님들이 IELTS 출제자분들이 계셨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여쭙보았다. “국제 간호사가 되려면 해당국가의 면허와 아이엘츠 점수가 필요한데 내가 시험본다면 스피킹이나 라이팅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라고했더니 일할수있을정도의 말을 할수있는것으로 보이고 원하는 점수를 얻을 것 같다고 하셨다. 그래서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생활 관련(의, 식, 주) 연수 국가의 특징, 주의할 점, 본인의 경험담

말레이시아는 물가가 싸다는 장점이 가장 크다 특히 먹을거리가 풍부하다. 그런데 술이 비싸다. 이슬람 국가라서 많은 여성 들이 히잡을 착용한다. 음식도 할랄, 논할랄이 구별되어 있어 돼지고기를 파는 곳이 많지 않다. 말레이시아의 음식은 개인적으로 한국 음식 보다 향신료가 매우 세고 짜다고 느꼈다. 번기 옆에 호스가 있는데 그래서 대학이나 호텔말고는 휴지가 준비되어있지 않은곳들이많았다. 또 말레이시아는 좌측통행이라 처음에 너무 헷갈렸다.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어서 택시탈때 매번 헷갈린다. 차도를 건널 때 횡단보도가 생각보다 없고 신호등도 없어서 건널 때 갑자기 뛰어들거나 오는 차를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여기 사람들은 ‘사람이 차를 피하겠지’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우리학교 학생 중 하나가 교통사고 났다고 들었다. 차도를 건널 때 매우 주의해서 건너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 할 후배에게 미리 알고 가면 좋을 정보(준비 절차, 준비물, 비상약, 추천정보, 꿀팁)

더위를 많이 탄다면 들고 다니는 선풍기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또 말라카, 페낭 등 쿠알라룸푸르 말고도 놀러 갈 수 있는 지역이 있으니 시간이 된다면 갔으면 한다. 한달이나 해외에 있다 보니 3~4주차부터 친구들의 컨디션이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고 냉방으로 인해 감기에 걸리는 친구들이 많았다. 감기약이나 의사에게 처방받은 항생제를 챙기는 것도 좋다. 또 무조건 샤워 필터기는 헤드랑 필터 다 챙겨서 가야한다. 개인적으로 말레이시아에 가서 찾아봤으나 IBIS호텔에 맞는 필터기를 찾기 어려웠거나 아예 샤워필터기를 팔지 않았다. 3,4일 쓰면 바로 필터가 까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피부가 예민하면 무조건 챙겨야 한다. 기념품은 센트럴 마켓이나 파빌리온 같은 쇼핑몰에 많이 판다. 그리고 가끔 동양인에게 불친절한 직원이 있는데 혹시 자신이 구매한 것보다 더 많이 계산했는지 영수증을 매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다.

※ 연수 기간 동안 찍은 사진 첨부 및 기타 의견 작성

<p>기숙사/ 호텔 등</p> 	<p>학교 캠퍼스/ 시설</p> 
<p>수업 / 강의실 / 카페테리아 등</p> 	<p>문화 체험</p> 
<p>기타1</p> 	<p>기타2</p> 
<p>연수 기간 동안 느낀 장·단점 / 기타 의견 및 건의사항</p>	

나는 중국에서 7년반을 어학연수부터 본과 학부 그리고 병원 인턴까지 경험하고 살았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정말 동서양의 문화를 모두 경험 할수있는 가장 좋은 배움터이다. 처음에 말레이시아에 대해 모를때는 이곳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에대해 몰랐다. 그리고 언어환경이 이렇게 최적화 되어있는줄도 몰랐다. 좋은기회를 주신 부천대 국제교류원에 감사하고 내년 겨울 취업전 마지막 겨울도 이곳에 가기위해 1년동안 돈도 모으고 준비를 하려고 한다. 간호사들에게는 아이엘츠가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해외취업 간호사의 꿈을 꿀수있는데 말레이시아에 다녀오니 영국식 발음도 들이고 아이엘츠에 최적화된 교육을 받을수있어서 좋았다.다만 비행기표값이 부담이되어 대한항공말고 선택할수있으면 좋았을것같다.